

“263p 오르내려, 살 떨리는 하루… ‘비이성적 과열’ 경계를”

오천피 붕괴

개인, 하루동안 5.7조 순매수
현대차·삼성·SK 등에 편중
시장 1990년대 IT버블과 닮아
“당시 보다는 안정” 분석도

4933.58과 5196.71.
2일 코스피 지수가 그린 궤적이다. 장 중 263.13포인트를 오르내리며 투자자에게 살 떨리는 하루를 선사했다. 전 거래일보다 101.7포인트(1.95%)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오후 한 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하루 5조7000억원 넘게 산 개인과 외국인(3조3000억원 순매도)의 치열한 공방 속 코스피는 결국 4949.67까지 밀려났다.

최근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러운 시장을 지배한 건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비이성적 과열’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는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 과도한 주가 급등세에 대한 경고를 던지며 썼던 말이기도 하다.

◆과열과 시장 편중 우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6조원 가까이 산 개인은 올해 누적 순매수액이 10조원(10조125억원)에 달한다. 올해 외국인(6조8000억원)과 기관(5조9000억원)의 대규모 매도에도 동학개미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



장중 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코스피가 급락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274.69 포인트(5.26%) 내린 4949.76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는 셈이다.

시장 곳곳에서는 과열과 편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10조원 가까이 돈을 쏟아부은 동학개미의 ‘편식’은 심했다. 현대차를 5조7000억원어치 사들였고, 삼성전자를 5조5000억원어치 쓸어담았다. SK하이닉스 주식도 4조원에 달했다. 개인 매수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블랙 먼데이’ 상황에서도 각각 ‘15만전자’(15만400원), ‘80만닉스’(83만원)에서 벼렸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특정 종목에 쏠림 현상이 이어져 그동안 지수가 급등했지만, 상승장을 틈타 외국인과 기관이 차의 실현에 나서는 모양새”라며 “최근 급등세가 대형주 내 소수 종목에 집중된 만큼 상승 피로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 전체로 보면 주가가 오른 종목은 116개, 내린

종목은 799개로 일부 종목으로 쏠린 ‘그들만의 리그’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는 역대급 ‘불장’에서 단기 과열종목도 함께 크게 늘었다. 지난달(1월 2~30일) 국내 증시에서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41개로 집계됐다.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기에는 연료가 너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대기자금인 투자자에 턱금은 지난달 30일 106조325억원에 이른다. 호시탐탐 증시의 상승세에 편승할 시기를 기습하며 증시 입성을 노리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 꿈쩍 않던 연금자산도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포털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은행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60조5580억원을 기

록했다. 전년보다 15.4% 늘었다. 같은 기간 증권사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31조5026억원을 달성했다. 2024년 말 103조9257억원보다 26.5% 성장했다. 최근엔 빛내서 투자하는 ‘빛투’ 움직임 까지 가세 중이다. 현재 신용거래융자는 30조2779억원에 달한다.

◆“닷컴 버블” 떠오른다”vs “펀더멘탈 탄탄”

일각에서는 과열된 시장의 움직임이 IT 버블로 가득했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시장과 닮은꼴이란 분석도 나온다. 당시 미국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IT 열풍이 바다 건너 한국으로 넘어오며 시장이 과열됐다. 비이성적 과열이란 경고가 나온 시기다. 이후 거품이 꺼지며 투자자와 시장은 한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날 증시 폭락에도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지금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마지막 기회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거나 “정말 ‘20만전자’와 ‘100만닉스’로 갈 수 있느냐”고 묻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IT 버블의 충격이 훤플고 간 2000년대 초반과 현재 상황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격의 개미가 투자하는 분야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IT 버블 당시엔 미래에 대한 기대가치만 있지 실적이 없는 곳에 투자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기존의 캐시

플로(현금흐름)가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등 미래 한국 사회 산업을 선도 할 미래 기술을 가진 종목에 투자한다”고 말했다. 당시보다는 안정성을 확보한 투자라는 말이다.

버블에 대한 시각차는 있지만, 짧은 시간 과도한 상승세를 보인 만큼 언제든 출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석준 모건스탠리 연구원은 최근 2026년 말 코스피 목표치를 4500에서 5200으로 올려 잡으면서 “코스피는 단기 조정(breather)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환 및 금리 흐름 같은 금융 시장 관점에서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잇따른 주가·심리·수급 과열로 인해 미반영 악재에 민감하고 선반영 호재에 둔감하게 시장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며 “설 연휴 공백 부담 역시 시장의 숨 고르기 전환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짚었다.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31일(현지시간) 연준 의장 후보자로 지명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에 대해 “‘매파’(통화긴축 선호)가 아닌 ‘정치적 동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발 AI 과잉 투자 우려도 커졌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1면 ‘신용 인플레, 중·저’서 계속

李 대통령, 재경부 2차관에 허장 임명… 환율 관리 책임

우주항공청장 오태석 등 인사



개발협력과장과 대외경제총괄과장을 거쳐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보좌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경제공사를 지냈다. 이후 기재부 개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을 거쳐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를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국제경제 및 대외정책 전문가로 국제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경제와 국고를 관리하는 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낙점됐다. 1968년 전북 순창 출신인 그는 행정고시(35회)로 과학기술처에 입직한 이래 30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과학 기술 행정 관료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 1차관 시절 누리호 발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우주항공기술사업 물론 우주항공청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평가했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과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에는 각각 김좌관 부산기틀릭대 석좌교수, 가수 김원중씨를 각각 발탁했다.

/서예진 기자 syj@

은행 15곳 신용평가 평균점수 924점 달해 고신용 대출도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가 비용 부담이 큰 제2금융권 대출로 밀려나고 있어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 가운데 15곳은 개인 신용대출 평가 시 KCB 신용평가 점수를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국내 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신용점수 평균은 924점이다. ‘고신용자’에 해당하는 900점 이상 구간에서도 대출 승인을 확신할 수 없었던 셈이다. 같은 기간 신규 취급 대출 금리의 평균은 연 5.22%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고신용자에게도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중·저신용자의 금융수요는 제2금융권으로 밀려났다. 통상 저축은행 대출은 신용점수 600~650점, 신용카드대출(카드론)은 700점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34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12월 신규 공급한 대출의 금리 평균은 연 15.14%다. 같은 기간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3.93%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들은 금융 거래 이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제1금융권 대출 대비 3배 가까이 비싼 이자를 지불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제2금융권 대출 이용 시에는 신용점수 하락폭도 큰 만큼, 비용이 보다 저렴한 제1금융권 상품 이용은 더 어려워진다.

/안승진 기자 asj1231@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두 달째 감소

주담대 610조… 전월비 1.5조 ↓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와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들며 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65조81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과 비교해 1조865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4653억원 줄어든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이처럼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컸다.

주택담보대출은 610조1245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1조4836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이 감소세를 나타낸 건 지난 2024년 3월(-4494억원)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감소폭은 지난 2023년 4월(-2조2493억원) 이후 가장 컸다.

앞서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여 왔다.

여기에 주택 매매 거래가 위축되면서 대출 수요 자체가 줄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수도권 기준 10월 2만5000호에서 11월 1만8000호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같은 기간 8만5000호에서 3만3000호로 감소했다.

신용대출도 전월말 대비 2229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5961억원 감소한 뒤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정부 규제로 연소득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미 많은 고객들이 대출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에 미리 받아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올해도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량 관리가 경상성장률보다 더 올라가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8% 정도였는데 이거보다 낮게 강화해서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